

전남 '탄성소재 고도화' 국책사업 탄력

부산시와 공동 추진...산업부 소재기술혁신 심사 통과 사업비 2098억...전남-부산 고무벨트 조성 계획 2023년까지 시장 43조대로 2배 확대...자립화 도모

전남도와 부산시가 공동 추진하는 '탄성소재산업 고도화 사업'이 산업부 심사를 통과, 국책사업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탄성소재산업 고도화 사업이 산업부의 '소재기술혁신 2030 사업' 심사를 통과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성 평가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이를 통과하면 2020년부터 정부 예산이

반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탄성소재 산업 고도화 사업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건설기계, 기계부품 등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핵심소재인 탄성소재를 고부가가치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098억원(국비 1355억원)을 투자해 합성고무 생산설비가 밀집한 전남과 신발·고무 산업이 발달한 부산을 연계해 남해안 고무벨트 조성한다는 계획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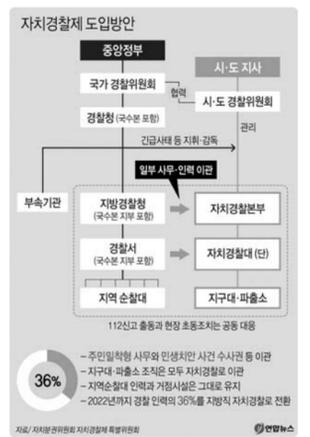
다. 전남도는 이 중 856억원의 사업비로, 기술개발 R&D 사업(기능성 범용 탄성소재, 특수 탄성소재, 고기능 열가소성 탄성소재, 탄성소재 스마트 공정기술)과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재 21조원 규모의 국내 탄성소재 시장 규모를 2023년까지 연간 43조원 규모로 확대해 국내 탄성소재 산업 자립화를 꾀한다. 전남도와 부산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화학신발연구원과 함께 2014년부터 기업체 수요조사를 벌이는 등 사업을 준비해왔다. 산업부도 필요성을 인

정하고 올해 초 '첨단화학산업 발전전략'에 반영했다. 탄성소재의 일종인 특수탄성소재의 경우 국내 기술력은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부는 합성고무 생산설비가 밀집한 여수와 신발·고무산업이 발달한 부산을 탄성소재 산업 육성 최적지로 꼽고 있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이 사업으로 2029년까지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과 협의해 국책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 이관 4만3천명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

2020년까지 수사권 등 넘겨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



이 방안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김영록 전남지사 참석 도 초고령 대응 시책 발표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부산시 주최로 열린 제27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에 참석, 전남도의 초고령사회 대응 시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전남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고독사 자킴이단'과 '시니어택배 운영 사업' 등 초고령사회를 맞아 추진하는 주요 시책을 소개하고, '진선·한일 시니어합창 교류대회' 개최를 제안, 참석한 한일 시도 현 지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2019 국제농업박람회' 등 각 시도현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지사회의의 주제는 '초고령사회 대응 시책'이다. 각 시도현 지사들은 자기 지역에서 실시하는 관련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또한 자유주제를 통해 각 지역의 국제 행사와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초고령사회 시책과 지역 발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한편,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는 매년 한국과 일본이 번갈아가며 개최한다. 한국은 전남·부산·경남·제주 등 4개 시도, 일본은 후쿠오카·사가·니가타·야마구치 등 4개 현이 참여하고 있다. 1992년부터 27년간 개최해온 이 회의는 1993년 환경기술과 수산관계 교류를 시작으로 광역관광협력의 사업 등 총 7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1998년, 2006년, 2014년에 지사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회의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열린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3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7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에서 공동주제인 초고령사회 대응시책과 자유주제인 2019 국제농업박람회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측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일본측 나가사키현 지사, 오가와 히로시 후쿠오카현 지사, 무라오카 쓰구마사 야마구치현 지사,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 지사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靑 "북 삭간물 미사일 기지 이미 파악...폐기의무 협정 없어" "북미 대화 앞두고 오해 소지 없애기 위한 것...북 편들기 아냐"

청와대는 13일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CSIS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탄

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비밀 기지 중 한 곳으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물 일대의 미사일 기지를 지목한 데 대해서는 '단거리 미사일용'이라고 언급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CSIS의 분석을 두고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한 뉴욕타임스(NYT)의 주장에 김 대변인은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CSIS가 삭간물 미사일 기지 등을 '미신고 기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도 그는 "신고를 해야 할 어떤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이 북한의 입장을 해명해주는 듯한 모양새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미신고", '속임수'와 같은 내용이 북미 대화에 필요한 시점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협상 테이블이 성사되는 걸 저해할 수 있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수백억 횡령 이종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 벌금 1억·임대주택 비리 상당 부분 무죄 판단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혐의 등 상당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의 공사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혐의 중 일부는 불리하지 않다고 협상 테이블이 성사되는 걸 저해할 수 있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천만 원을 횡령·배임으로 내게 한 것은 횡령으로 인정했다. 또 이 회장이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 8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기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 수익을 챙겼다는 검찰의 공사사실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건축비를 산정할 근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죄가 되는지 따지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연합뉴스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설66주년

경매투자
투자/비법에 관한 모든 것!
(주)오천경매.010-3605-5000

전국
임야/단독설/무인도
바로합니다.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주광역시 인구조별복지지원회 광주전남지회

함께 하면 돈돈 육아 성공비법

직장·가족·이웃

- 직장: 직장내치문화 제로법 (직장일 & 대다에게 보너 주는 대신 배려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 가족: 슈퍼맘 방지법 (아이들 도우려는 열혈에서 방해 하는 아내되기!)
- 이웃: 육아대디 지지법 (이웃들의 육아에 칭찬, 격려, 응원하기)
- 직장: 육아후수 주의법 (서훈 육아에 후수 대신 칭찬기 마련한 한미디 아내되기!)
- 가족: 돈돈육아 동참법 (물앗이 육아, 아이 안전 지킴이, 나무타기 육아 등 다양한 육아하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조별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訃 告

前 金海金公 桂潤께서 2018年 11月 13日 새벽 3時 宿患으로 別世하셨습니다. 生前의 厚意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永訣式을 舉行하게 되었음을 삼가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永訣式場: 그린장례식장 VIP장궁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55 (연락처 : 062-250-4455)
2. 發 軔 日 時: 2018年 11月 15日 08時 30分
3. 葬 地: 망월묘지공원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85

未亡人	李 南 熙	子 孫	金 俊 錫
子	金 大 漢		金 度 延
	金 大 翼		金 昶 憲
女	金 美 良		金 建 佑
子 婦	金 倫 希		金 江 玟
	朴 起 里	外 孫 女	張 支 薰
		外 孫 婿	鄭 承 賢

2018年 11月 14日
護 喪 金 榮 珣